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전시회장 조성에 관한 평가와 분석

An Analysis of evaluations of Exhibition Design for Cheongju International Craft Biennale

Author 조영연 Cho, Young-Youn / 정회원, 주성대학 실내디자인과 조교수
이강훈 Lee, Kang-Hoon / 정회원, 충북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Abstract Cheongju International Craft Biennale is not just an art exhibition but more like a public festival which is including an experiential learning and a public participation section as well as a special exhibition and an international competition section. Thus it is strongly required to present an appropriate meaning and mood corresponding to each exhibition hall. The paper has examined the exhibition topics during the last 10 years and the plannings and contents to install the exhibition hall according the yearly topic and it has analyzed the comprehensive evaluations after the exhibition. The research scope is limited to the part related to the exhibition hall and facilities, which is including calculation of dimensions and layout, access and movement system, the appropriateness of the design and construction period, measure of applied technology appropriateness, post management as well as planning intent, estimation of the number of the visitors, preliminaries. With the results shown in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and analysis, the paper has presented two issues, the one related to the procurement and preparation and the other related to the facilities. It is showed that both problems are due to the lack of expertise and it is necessary for the experts to participate from the first step of the procedure including planning for the successful exhibition. For the appropriate exhibition hall corresponding to the exhibition planning and scale, it is required to have the professional considerations of successful space and visitor's movement management, display environment, construction method, and post management. The study presents that architectural and interior design have to take an active part in constructing exhibition design in overall stage including the initial, practice, and evaluation stage

Keywords 비엔날레,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전시, 전시회장 조성
Biennale, Cheongju International Craft Biennale, Exhibition, Exhibition Desig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999년에 첫 개최된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가 올해로 10년을 거쳐 6회째를 맞이하였다. 1995년 광주비엔날레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도시에서 다양한 비엔날레가 개최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엔날레가 미술 분야의 전문 전시행사로 개최되고 있는 외국의 예와는 행사의 성격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분야에 있어서 ‘공예’에 국한하나, 주제 전시 이외에 국제공모전, 페어(fair), 체험전 등 ‘전문전시’와 ‘일반참여’의 종합 축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

‘비엔날레’는 그 성격상 전시장의 조성이나 전시연출 자체를 하나의 미술작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라고 볼 때, 하나의 관점을 두고 개최 시기 간에 서로를 비교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거나, 오히려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한 시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와 같은 상대적으로 대중적인 종합축제행사의 경우, 행사의 각 부문별로 세부적인 성격과 추구하는 의미를 달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적절한 환경연출을 위하여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전시회장의 조성에 있어서 관련된 전문분야로서의 건축과 실내디자인분야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향후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를 비롯한, 그와 유사한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서 전시회장 조성에서의 필요한 역할과 참여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진행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앞서 언급한 연구의 목적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의 성격과 개최배경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후, 지난 10년 동안 개최연도별로 행사의 주제와 그에 따른 회장 구성에 대한 계획과 내용을 살펴본 후, 행사 결과에 나타난 평가와 함께 종합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한다.

연구의 범위는 전시회장 구성과 직접 관련된 시설과 전시에 국한하며, 다음과 같은 관점을 중심으로 수렴한다. 행사기획과 관련하여, 첫째, 행사의 성격과 기획의도, 둘째, 규모의 설정 및 관람수요의 예측, 셋째, 기획 및 사전준비과정을 들 수 있으며, 건축 및 전시연출의 접근과 관련하여, 첫째, 면적의 산정과 배치, 둘째, 접근 및 관람동선체계, 셋째, 설계 및 공사 기간의 적정성, 넷째, 적용기술의 척도와 적정성 및 사후관리에 대한 관점을 중심으로 한다.

2. 공예비엔날레의 개최배경

2.1. 비엔날레의 정의 및 역사

이탈리아어로 표기된 비엔날레(Biennale)란 사전적 의미에서 “2년간 계속되는”, “2년마다”를 뜻한다. 영어식 표기는 ‘바이에니얼(Biennial)’이다. 즉, 2년마다 열리는 집회나 행사를 모두 비엔날레로 부를 수 있겠으나, 현대에 이르러 일반적 추세는 예술 분야에서 격년제로 열리는 전시와 부대행사를 일컫고 있다. 이렇듯 비엔날레는 격년제로 열리는 특별한 행사이기 때문에 현대 예술의 최근 동향을 파악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알려진 비엔날레 행사를 꼽는다면 이탈리아가 민족의식을 높이기 위해 국왕 결혼기념일에 맞춰 1985년 시작된 ‘베니스비엔날레’와 미국 현대미술의 후견인이었던 휘트니(G. Whitney)여사에 의해 1931년 설립된 휘트니 미국미술관(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에서 개최하였던 ‘휘트니비엔날레’, 1951년 시작된 ‘상파울로비엔날레’, 1973년 시작된 칠레의 ‘발파라이소비엔날레’ 등을 들 수 있다. 이 밖에 1959년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청년작가들의 발걸음 목표로 창설하여 35세 이하의 젊은 작가들을 대상으로 80년대 중반까지 개최하였던 ‘파리청년작가비엔날레’와 역시 폐지된 ‘동경비엔날레’와 특정 장르에 국한한 ‘류블리나관화비엔날레’와 같은 행사도 기억할 만하다.¹⁾

2.2. 비엔날레의 유형

비엔날레를 개최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데, ‘베니스비엔날레’와 같이 각국에서 위임한 커미셔너에 의해 선정된 작가들의 작품을 각 소속국가관에서 전시하는 본전시와 특정 주제 아래 열리는 특별 전시로 나누어 개최하는 방식이 국제비엔날레의 일반적인 추세였으나, 준비기간과 개최경비의 부담으로, 현대에 이르러서는 ‘휘트니비엔날레’의 경우처럼 큐레이터나 예술감독이 전시주제를 설정하고, 그 주제에 부합되는 작가를 선정하여 전시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전체 행사에 대한 큐레이터나 예술감독의 권한과 영향이 거의 절대적임을 감안해 볼 때, 그 선정에 있어서 국제적인 지명도와 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2.3.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의 개최 배경

교육 문화 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는 청주는 국제공예비엔날레 개최와 관련하여 청주시가 공예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으나 공예의 한 분야인 금속공예/활자 측면에서 세계 최초 금속활자의 발상지란 점에서 접근할 수 있고, 공예인들을 주축으로 한 지역예술인들은 물론, 관련 기관 단체 및 학계에서는 21C 문화산업 시대를 대비하여 국내 공예산업의 인프라 구축과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제공예예술의 교류의 장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이 지역에서 세계적인 비엔날레 개최를 염원하여 왔으며, 그간 성장 일변도의 산업화 정책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벤처 정신으로 문화 예술 부분의 1등 도시 건설과 한국 공예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고부가가치 문화 산업의 육성을 통해 청주를 특색 있는 국제도시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청주시의 시정 방침에 따라 세계 최초로 국제공예비엔날레를 개최하게 되었다.²⁾

3. 개최 연도별 전시회장 조성 내용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는 격년제 개최에 따른 비 상설 전시라는 점과 개최비용 절감을 위하여, 청주시 예술의 전당 및 주변시설 등의 기존시설을 활용하면서, 시설주변공간에 임시 파빌리온을 단기적으로 설치하여 운영된다. 개최 연도별로 설정되는 주제와 행사/전시규모 및 분류에 따라 새로운 전시회장 조성계획을 세우게 되며, 그에 따라 시설 배치와 동선계획을 설정하고, 부문/분류별 전시장에 대한 연출계획을 작성하여 조성한다.

3.1. 제1회 - 1999년 전시회장 조성

(1) 행사주제와 전시회장 조성 기본계획

첫 개최인 99년은 ‘조화의 손’이라는 주제아래 대외적 홍보와 공예의 재발견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국제공예공모전’

1)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조직위원회, '99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결과 보고서, 미간행, 1999, p.44

2)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조직위원회, '99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결과 보고서, 미간행, 1999, p.45

과 '국제초대작가전', 국제학술회의로 분류하여 개최하였다.

행사장의 규모는 계획 기준인 15,000명, 일일 최대입장객 20,000명, 동시 체류 인원 20,000명으로 추명을 기준하여 계획하였다. 행사장 전체의 동선은 회장 진입 동선, 관람객 동선 및 보조동선, 관리동선, VIP동선, 비상동선 등으로 분류하고, 출입문 계획은 회장까지의 접근에 따른 관람객 분담률을 기준으로 정문출입구 35%, 남문 출입구 40%, 서문 출입구 25%씩 3곳으로 분리하고, 그 외 관리·서비스·VIP전용 출입구를 별도 설치하였다.

<표 1> 제1회 - 1999년 주제 및 행사별 소주제

주제	행사분류	행사별 소주제
조화의 손 - 미래에서 날아온 화살	국제공예공모전	창조적 정신으로 '공예'의 미래를 여는 작품
	국제초대작가전	세계 현대공예의 오늘
	국제학술회의	예술과 산업디자인의 교차점 "공예상의 회복"

회장 진입 동선은 자가 교통수단 이용자와 단체관람객은 정문과 남문까지 도보 동선으로 계획되었고, 택시와 노선버스의 경우 각 게이트 입구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회장 내에서의 관람객의 주 동선은 각 부문별 전시장과 부가행사장³⁾ 간의 동선을 최대한 짧게 하고, 관람객의 선별관람을 위하여 각 마당을 정하여 광장에서 관람객의 유입·이동·정체로 인한 혼잡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전시계획

전시계획의 기본 방향은 각 전시장의 주제 및 개념을 특성별로 구분하고 구분된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형태로 결정 설계하되 기존 건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시장의 한계를 넘어 관람객이 선택해서 볼 수 있는 전시형태를 만드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표 2> 제1회 - 1999년 전시부문별 전시연출계획

구분	전시부문	위치	전시연출
주제 전시	국제공예공모전 수상작 및 입선작	진입부	원근감 이미지 부각 - 경사벽체와 트러스 과거, 현재, 미래의 표현 - 아크릴 반사효과 진입, 환영의 이미지 - 모니터 영상효과
		전시부	개별 전시대와 공통 전시대 분리 배치 200x200 트러스 상부 코너명 부착 대상작품 포커스 - 중앙 원형 목재 구조물
주제 2관	무형문화재 보유자 작품 공예품 대전 수상작	진입부	협소한 동선공간 극복 - 아치구조물 설치 동선유도 - 로비부분 Image wall 구성
		전시부	협소한 통로 고려 - 전시대 벽체쪽 배치 통일된 이미지 연출 - Sign 통일 차별한 전시분위기 유도 - 곡선이미지 이용
기획 1관	국제초대 작가전 (금속, 도자기 공예)	진입부	환영의 이미지 - 이미지 그래픽 패널 전시대의 모듈화 - 규격의 통일
		전시부	전시 분위기 조성 - 대형 배너 설치 동선 통제 - 입구와 출구의 분리
기획 2관	국제초대 작가전 (목칠, 염직, 기타 공예)	진입부	환영의 이미지 - 이미지 그래픽 패널 전시대의 모듈화 - 규격의 통일
		전시부	전시 분위기 조성 - 대형 배너 설치 동선 통제 - 입구와 출구의 분리

3)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공간으로 체험마당, 놀이마당, 먹거리마당, 공예품판매장 등이 해당 됨.

동선과 배치는 원칙적으로, 입구에 중정형태의 공간을 배치, 관람 방향의 선택성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관람동선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연속감을 갖도록 하였다.

전시연출에 필요한 각종 시설/설치물과 매체의 운용 원칙으로는 첫째, 쾌적한 관람환경, 작품 감상의 연속성 유지, 지루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동선 제공, 둘째, 부문별, 파트별 구분, 셋째, 전시 공간 전체의 통일과 조화, 정적이며 온화한 분위기 연출로 하였다.

3.2. 제2회 - 2001년 전시회장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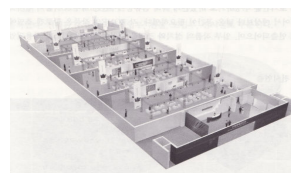
(1) 행사주제와 전시회장 조성 기본계획

2회제를 맞은 2001행사는 '자연의 숨결'이라는 주제 하에 '예술적 미감의 체험'과 '인간적 생활의 체험'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공예산업을 매개로 연결시키기 위한 기획의도를 가지고, 1회 개최 당시의 '국제공예공모전', '국제초대작가전' 외에 '전통공예관'과 '산업공예관'이 추가되어 개최되었다.

<표 3> 제2회 - 2001년 주제 및 행사별 소주제

메인테마	전시분류	전시별 소주제
창조적 진화 - 깊고 느리게	본전시 I	잃어버린 가치를 찾아서
	본전시 II	공예·삶에 대한 형식
	국제공예공모전	창조적 진화 - 깊고 느리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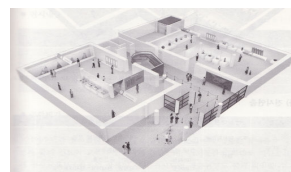
99년 행사에 비해 축소된 예산을 감안하여,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되 전시행사의 성격을 살려 수준 높은 전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효율적인 외부 환경물의 제작을 줄이는 대신 전시환경연출에 주력하였다. 행사장 전체의 동선은 99년의 계획과 거의 유사한 계획 하에 시행착오가 발견된 일부 진입동선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졌으며, 행사 전반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는 1회 행사 평가에 따라 메인게이트 진입광장에 정보 이미지월을 강화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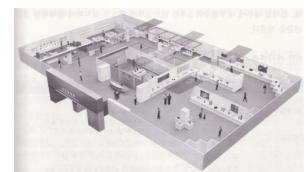
<그림 1> 2001 국제공예공모관



<그림 2> 2001 국제초대작가관



<그림 3> 2001 전통공예관 1층



<그림 4> 2001 산업공예관

(2) 전시계획

전시계획의 기본 방향은 환경친화적 연출소재 채택,

원활한 관람공간을 위한 동선체계 확보, 교육적 기능이 수행되는 작품 설명체계 도입, 목적과 기능에 충실한 디자인 전개에 맞추어 진행 되었다.

전시실의 평면 배치는 진입부, 전실(도입부), 전시실로 구분하고, 진입부에는 파사드를 설치하여 전시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전실에서는 전시주제, 전시내용 등 상세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시실은 각 부문별로 구분 전시될 수 있도록 파티션이나 부스를 설치하였다.

<표 4> 제2회 - 2001년 전시부문별 전시연출계획

구분	위치	전시연출
국제공예 공모관	진입부	파사드 - Colour에 의한 전시관 이미지 전달
	전실	안내데스크 - 환영공간 연출 스트링거 - 관람 동선 안내 아크릴보드 - 전시내용의 조망
	전시실	트러스 - 존별 전시장르, 주제이미 전달 스트링거 - 강제순환동선체계도입 캡션 - 작품설명판 가드레일 - 작품 손상 방지
국제 초대작가관	진입부	파사드 - Colour에 의한 주제 이미지 전달
	전실	이미지 월 - 전시구성별 초대작가 소개 안내데스크 - 환영공간 연출 설명판넬
	전시실	트러스 - 섹션별 전시장르 구분 스트링거 - 강제순환동선체계도입 캡션 - 작품설명판 가드레일 - 작품 손상 방지
전통공예관	도입부	파사드 - 기하학적 전통문양 적용
	전시실	스트링거 - 강제순환동선체계도입 캡션 - 작품설명판 가드레일 - 작품 손상 방지 시연시설, 쇼케이스 전시대, 수장시설 설치
산업공예관	진입부	파사드 - Grey색채도입으로 미래지향적 이미지전달
	도입부	이미지 월 - 전시명 표기 안내데스크 - 환영공간 연출
	전시실	파티션 - 단계별 공간구분 이미지 월 - 전시 아이템, 수장작 설명 동선유도사인 - 원활한 동선유도 배너 - 전시 아이템 구분

전시연출에 필요한 각종 시설/설치물과 매체의 운용 원칙으로는 첫째, 쾌적한 관람환경, 작품 감상의 연속성 유지, 지루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동선 제공, 둘째, 부문별, 파트별 구분, 셋째, 전시 공간 전체의 통일과 조화, 정적이며 온화한 분위기 연출로 하였다.

3.3. 제3회 - 2003년 전시회장 조성

(1) 행사주제와 전시회장 조성 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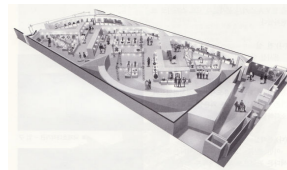
2003행사는 '쓰임'이라는 대주제 속에서 <표 3>에 나타난 것 같이 각각 설정된 주제 하에 4개의 전시관으로 개최되었다.

<표 5> 제3회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주제 및 주요전시별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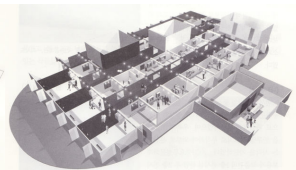
주제	전시분류	전시별 소주제
쓰임	국제공예공모관	행복한 일상
	국제초대작가관	쓰임의 재발견
	생활공예명품관	사이
	전통·전승공예관	장인의 숨결

2001년 행사와 마찬가지로 기반시설의 재활용과 각 전시관의 주제와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차별화 연출에 주력하였다. 더욱이 각 전시관 간을 이어주는 연결성과 조화성을 갖춘 전시계획으로 행사장의 대공간을 연출하여 다양성도 함께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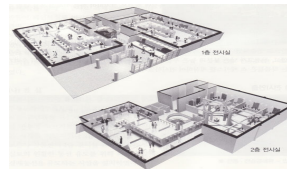
주 관람 동선은 메인게이트로 입장하여 전체 전시관을 차례로 관람한 후 서브게이트로 퇴장하게 하였으며, 서브게이트를 통해 입장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동선 곳곳에 유도 사인물 및 대형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관람 편의를 제공하였다.



<그림 5> 2003국제공예공모관



<그림 6> 2003국제초대작가관



<그림 7> 2003전통·전승공예관



<그림 8> 2003국제산업교류관

(2) 전시계획

<표 6> 제3회 - 2003년 전시부문별 전시연출계획

구분	위치	전시연출
국제공예 공모관	진입부	파사드 - 전시관, 상징체계 이미지 전달
	전실	안내데스크 - 환영공간 연출 유도사인 - 관람 동선 안내 그래픽 월 - 전시내용의 조망, 역대수장작 전시
	전시실	트러스 - 존별 구분 존별 이미지 월 - 존별 전시장르, 주제이미 전달 캡션 - 작품설명판 가드레일 - 작품 손상 방지
국제 초대작가관	진입부	파사드 - 브라운계열 색채도입, 주제 이미지 전달
	전실	이미지 월 - 영상활용 안내데스크 - 환영공간 연출
	전시실	천정 천 - 전시구역 설정 벽감 전시대 캡션 - 작품설명판 가드레일 - 작품 손상 방지
전통·전승 공예관	도입부	파사드 - 형태확대와 전면배치, 주제메시지 전달
	전실	이미지 월 - 전시구성별 초대작가 소개 안내데스크 - 환영공간 연출
전시실	전시실	이미지 월 - 작가명, 전시개요, 전시내용 전달 스트링거 - 작품 설명판 설치 가드레일 - 작품 손상 방지 시연시설, 쇼케이스 전시대, 수장시설 설치
	진입부	파사드 - 색채도입으로 공예이미지 전달
국제공예상품 · 산업교류관	도입부	이미지 월 - 전시명 표기 안내데스크 - 환영공간 연출
	전시실	파티션 - 단계별 공간구분 이미지 월 - 전시 아이템, 수장작 설명 동선유도사인 - 원활한 동선유도 배너 - 전시 아이템 구분

전시환경연출은 관람객들이 공예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한 관람객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으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토록 하는데 기본방향을 두었다. 특히 자연적이며, 행사 주제와 연관된 대표적 상징 색상 선정 및 배색 적용으로 공예만의 미려한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했다.

3.4. 제4회 - 2005년 전시회장 조성

(1) 행사주제와 전시회장 조성 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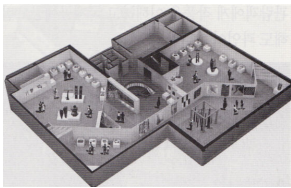
2005행사는 '유혹'이라는 대주제 속에서 <표 4>에 나타난 것 같이 각각 설정된 주제 하에 4개의 주제 전시관과 6개의 특별전시로 개최되었다.

2005년 행사는 역대와 달리 3개의 행사장으로 계획되었으며, 기획전을 비롯한 5개의 전시관은 이전처럼 예술의 전당 부지에, 그 밖의 전시관은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청주박물관 시설을 활용하여 분산 개최되었다.

<표 7> 제4회 - 2005년 주제 및 행사별 소주제

주제	행사분류	행사별 소주제
유혹	국제공예공모전	숨김과 드러남
	국제초대작가전	유혹
	기획전	21세기 공예의 모험
	전통공예특별전	裝飾美展

동선계획은 역대 최대의 규모인 점과 분산 개최인 점을 감안하여, 각 전시관의 접근성과 연결성에 주력하였으며, 자연스러운 동선을 추구하였다. 아울러, 행사장 내 구성 및 입장객 수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각 전시관과 행사공간의 체류시간을 고려하여 계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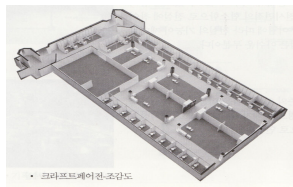
<그림 9> 2005국제공예공모관



<그림 10> 2005국제초대작가관



<그림 11> 2005국제공예산업교류전



<그림 12> 2005크라프트페이전

(2) 전시계획

전시환경연출은 관람객들이 주제와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은유적 상징성을 가미하고, 무엇보다도 작품이 돋보일 수 있도록 시각적 저해요소를 차단하고, 자연스러운 관람동선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며, 역대적으

로 사용되었던 전시관 별 색상 구분을 통하여 각 전시관의 성격을 명확하게 표현 하였다.

<표 8> 제4회 - 2005년 전시부문별 전시연출계획

구분	위치	전시연출
국제공예공모관	진입부	'유혹'을 곡선의 이미지로 형상화한 캐노피
	전실	안내데스크 - 환영공간 연출 스트링거 - 관람 동선 안내 그래픽 월 - 전시내용의 조망, 역대수상작 전시
	전시실	장르별 5개구분 도입부 연출오브제 - 재료의 특성 극대화 계단 - 역대 공모전 수상작 전시 할로겐조명, 트러스, 간접조명 영상실 - 작품 및 주제, 취지 이해 도움
국제초대작가관	진입부	'유혹'을 곡선의 이미지로 형상화한 캐노피
	전실	이미지 월 - EVA스카시로 전시명 표현 바닥 - 유도사인 부착
	전시실	5가지 소주제, 영상 및 자료실로 분류 어두운 조도, 할로겐조명 - 작품 부각 대형구조물, 독립전시대 - 다양성, 독창성 연출 디지털공간 - 자료 및 제작과정 영상물
전통공예특별관	도입부	전시관 유도 스트링거 설치
	전시실	예술의 전당 로비홀을 이용하여 전시품격 향상 시연코너 - 제작과정 관람
국제산업교류관	진입부	파빌리온 전면 만국기 설치
	도입부	이미지 월 - 전시내용 상징적 표기 안내데스크 - 환영공간 연출
	전시실	파티션 - 국가별 공간구분, 시연공간 독립부스 - 국가별 성격 감안 다양한 평면 구성 영상매입형 게이트, 수납형 진열대 - 구분, 개방감 시연공간

3.5. 제5회 - 2007년 전시회장 조성

(1) 행사주제와 전시회장 조성 기본계획

2007행사는 '창조적 진화-깊고 느리게'라는 주제 하에 2파트의 본 전시와 5파트의 특별전시, 2파트의 공모전시 외에 페어전시, 체험행사 등의 다양한 행사로 치러졌다.

<표 9> 제5회 - 2007행사의 주제 및 주요전시별 소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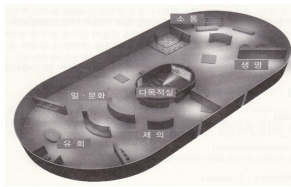
주제	전시분류	전시별 소주제
창조적 진화 - 깊고 느리게	본전시 I	잃어버린 가치를 찾아서
	본전시 II	공예: 삶에 대한 형식
	국제공예공모전	창조적 진화 - 깊고 느리게

2007년 행사는 예술의 전당 부지와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두 군데에서 분산 개최되었으며, 전시위주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외부 환경물의 제작을 줄이고 전시관 내의 수준 높은 전시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였다. 따라서 회장 접근 동선은 종전과 같으나, 회장 내에서의 동선은 본전시를 중심으로 한 동선체계로 재조정하여 전시위주의 관람을 유도 하였으며, 또한 행사장내에 각 전시관과 체험 장을 분리하되 접근성과 연결성을 극대화하여 자연스러운 동선을 유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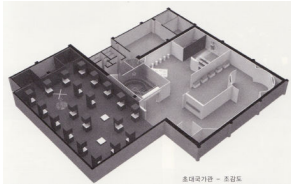
동선계획은 행사장내 구성 및 입장객 수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각 전시관과 행사공간의 체류시간을 고려하여 계획하되 종전과 다르게 기존시설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기 위해 사공간을 모두 메인동선으로 계획 하였으며, 메인동선을 LED구조물을 설치하여 관람객을 유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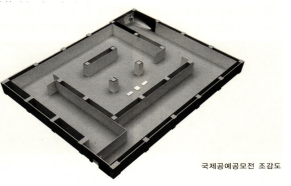
<그림 13> 2007본전시 I 관



<그림 14> 2007본전시 II 관



<그림 15> 2007초대국가관



<그림 16> 2007국제공예공모관

(2) 전시계획

기본 방향은 본 전시를 중심으로 한 동선체계를 재조정하기 위해 기존시설의 이용에서 초래되는 동선문제를 최소화하고 각 전시관의 원활한 유도를 위해 LED조형물을 설치하였다. 외부 환경물은 행사 콘셉트에 맞게 색상 및 디자인을 심플하게 하여 깔끔하고 격조 높은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동선과 배치는 전시관으로 진입하는 도입부와 전실, 그리고 전시실로 구분하고, 도입부에는 전시관 및 주제에 관한 상징적 설명을 위한 구조물을 설치하며, 전실에서는 전시내용 및 동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전시실은 분야별로 파티션을 설치하되 가급적 개방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0> 제5회 - 2007년 전시부문별 전시연출계획

구분	위치	전시연출
본 전 시	1 관	진입부 기존시설 현관이부 감쌈-시각적 장애 정리 각파이프구조, 메쉬천, 시트스카시-전시관명, 전시주제 연출
		전실 EVA스카시-전시관명, 주제 빔 프로젝트, 영상-관람 전시내용
	2 관	전시실 3개 분야 구분-분야별 공간 개방 정보자료실-전시작품 설명 영상 벽 높이 높임-관람의 집중도 높임 행잉 구조물조명-작품 부각
		진입부 기존시설 현관이부 감쌈-시각적 장애 정리 각파이프구조, 메쉬천, 시트스카시-전시관명, 전시주제 연출
2 관	전실 이미지 월, EVA스카시-전시명, 전시주제 벽면-출입구, 동선 표시	
	전시실 파티션 설치-5가지 전시분야로 구분 시트커팅-소주제별 텍스트 벽 높이 높임-관람의 집중도 높임 행잉 구조물, 레일조명-작품 부각 영상 및 강연회실 설치-작품 정보 제공	

4. 평가와 분석

전시회장 조성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사이트에 대한 건축적 접근이나 시설에 따른 전시연출의 기술적 접근 외에도, 행사의 기획에 대한 성찰 또한 필요하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하여, 개최 연도별로 이루어진 행

사 총평과 평가⁴⁾를 통해 나타난 주된 문제점과 발전적 제안을, 연구의 범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행사기획에 있어서, 행사의 성격과 기획의도, 규모의 설정 및 관람수요의 예측, 기획 및 사전준비과정에 대하여, 건축 및 전시연출의 접근에 있어서, 면적의 산정과 배치, 접근 및 관람동선체계, 설계 및 공사 기간의 적정성, 적용기술의 적도와 적정성 및 사후관리에 대한 관점을 중심으로 수렴하고, 아울러 3장에서 살펴본 조성내용을 포함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4.1. 행사기획에 대한 주요평가

1999년의 평가는 개최 원년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주로 계획과 실행사이의 시행착오에 대한 부분이 주로 많았으며, 이 중 행사 규모의 설정, 충분치 못한 기획준비기간, 행사의 정체성, 부정확한 관람 수요 예측 등의 문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이후 개최 시 때도 반복되어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2001년 행사에서는 원년 개최시의 경험을 토대로 시설과 운영에 있어서 안정감을 많이 찾았다는 긍정적 평가와 대조적으로, 직전에 언급 하였던 기획 준비기간에 대한 비판적 평가도 적지 않았다. 물론 예산의 확보 등 외부적 여건의 어려움도 있었으나, 예술감독의 조속한 선정, 조직 및 운영위원회의 조기구축, 실행 대행사의 조기 선정 등 충분한 기획준비기간의 요구가 제시되었다.

2003년 평가에 따르면, 크게 구조적인 부분과 운영적 인부분으로 나누어, 구조적인 부분에서는, 주관처의 비엔날레 성격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전문가의 기능조직보다 직위 우선의 행정시스템 문제 등을 들었으며, 운영적 인 부분에서는, 행정 관행으로 인한 창의적 기획의 어려움, 예술감독과 각 위원회간의 권한 및 책임의 혼선 등의 문제점이 제시되었다.

2005년 평가에서는 행사의 성격을 ‘대중성과 전문성의 조화’로 규명하고, 행사의 기본 구조는 명확한 구분⁵⁾을 통하여 선명히 하는 대신, 통합적인 이미지의 창출을 통하여 행사의 체계를 확립할 것을 제시하였다.

2007년 예술감독인 임창섭은 행사 총평을 통하여 행사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방법의 하나를 ‘지역성 혹은 대

4) 본 연구에 기술된 평가는 각 개최시기별로 사후 발간된 행사결과 보고서의 내용 중 예술감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전시와 시설에 관한 평가 및 향후 발전적 제안을 토대로 발췌 요약되었으며, 개최 시기별 예술감독은 1999년과 2001년 장동광, 2003년 최광호, 2005년 최범, 2007년 임창섭이 위촉되었다.

5) 2005년 총평에 나타난 예술감독 최범의 주장에 따르면 “공예비엔날레는 전시, 페어, 그리고 공모전이라는 세 가지의 상이한 행사가 함께 추진되는 복합행사라고 할 수 있다. 전시(exhibition)와 페어(fair)와 공모전(competition)은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전시는 페어가 아니며 페어는 전시가 아니다. 공모전도 일반 전시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중략.. 각기 그 목표나 접근방법이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은 채 착종되었다. ..생략..”

표성⁶⁾의 주장을 통해 제기하였고, 주장에 따르면 ‘대표성 혹은 개방성’이 곧, 행사가 진정한 청주만의 고유한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였다.

4.2. 회장 조성 및 전시연출에 대한 주요평가

1999년 - 개최 원년이라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기존시설을 이용한 적절한 환경연출과, 가설 설치한 파빌리온의 적절한 조화 등 긍정적 평가와 함께, 동선유도표시의 미흡과 촉박한 공사일정, 예산부족 등에 따른 작품의 노출 전시 등 작품 훼손 우려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2001년 - 예산규모를 반영한 현실성 있는 행사장 면적 산정과, 전시규모와 성격에 따른 예상 관람객수의 산출, 행사장내의 동선관리를 위한 외부 경계선 설치 등의 지적이 있었으며, 예술감독에게 집중된 전시업무와 큐레이터업무의 분산 또는 적절한 전시팀 조직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2003년 - 전시관 구성을 위한 충분한 데이터 공유와 세분화된 분야별 업무분석을 통한 전문가 영입으로 전시관 구성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 되었으며, 진입동선계획의 시행착오, 전시관 내부공간의 동선 협소 문제와 국제초대작가관 등 일부전시관의 배치 착오에 따른 관람동선의 비효율성이 제기되었다.

2005년 - 지연된 설계 및 공기계획과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시공기간의 촉박으로, 품격 있는 시설물 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과 함께, 해외작가의 참여가 많은 경우 작품반입의 지연과 작품과악의 미비로 시설시공시 계획치 않은 문제점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2007년 - 전시관의 수준 높은 전시를 위해 외부의 불필요한 환경요소를 최소화하는 반면 전시관의 작품전시를 위한 구조물이나 조명설치 등 내실을 강화 하였으며, 전시기획이라는 이상과 기존시설을 바탕으로 한 시공문제라는 현실에서,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수준 높은 전시연출을 할 수 있었던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전시시설에 비중을 둔만큼 상대적으로 축소된 환경연출에 있어서 축제적 분위기가 다소 저하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각 전시관으로의 원활한 유도를 위해 설치한 LED조형물 등 새롭게 도입한 시설물 과 시공법의 사후 유지관리에 대한 미흡한 대처의 지

적이 있었다. 또한 행사장내 여유 공간을 활용해 지역작가워크숍을 관람할 수 있게 강계동선을 계획한 것은 종전의 행사와 달리 새로운 시도였지만 단체 관람의 경우 관람객의 이미 익숙한 동선접근으로 인해 다소 동선의 혼란이 발생되기도 하였다.

4.3. 분석

청주공예비엔날레는 지난 10년 동안, 올해를 포함한 총 6번의 개최를 통하여 행사의 규모와 더불어 그 질적 수준의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여, 그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개최 측의 뛰어난 능력은 물론이요, 꾸준한 반성과 개선의 결과일 것이다. 앞에서의 평가와 3장에서 살펴 본 회장 조성내용을 토대로, 지난 10년간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를 개최함에 있어서 드러났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충분한 기획 및 준비기간. 2003년 예술감독 최공호의 총평 중 “비엔날레는 2년에 한 번 열리는 행사이다. 격년이라는 시간적 간격은 1년을 쉬고 당해 연도부터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고 국제비엔날레를 치르는 데에는 일정 수의 정예멤버가 적어도 2년을 꼬박 준비해야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라는 문장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음이다.

둘째, 행사준비기구의 상설화 및 전문화. 행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자료의 축적과 유지관리이며,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상설화된 준비 기구를 통하여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것이다. 아울러 효율적인 준비기구가 되기 위하여 실무적인 전문화가 필요하다. 행사의 준비에는 명분보다 실리가 우선되어야 하며, 창의적 결과는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셋째, 행사의 정체성 확립. 처음 행사를 도입할 당시의 개최 의도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필요한 것은 개최의도가 무엇이었느냐 보다는 행사의 가치와 발전적인 지속 가능성이다. 2007년 임창섭이 ‘비엔날레 발전을 위한 제언’중에서 제시한 ‘개최배경에 대한 인식전환⁷⁾은 이 행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발전 지향적인 정체성에 대한 중요한 제안이 될 것이다.

6) “‘지역성’이나, ‘대표성’이나 라는 말은 곧 ‘폐쇄성’이나, ‘개방성’이나 를 말하는 것과 같다. 지역성이라는 의미는 흔히 자신들만의 고유한 혹은 자체의 것을 고수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어느 정도 일맥상 통하는 말일 것이다. ...중략... 지역을 강조한 다양한 전략들을 세우는 순간 국제행사라는 말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중략... 청주를 지역으로 보려는 시각 때문에 역설적으로 더욱 국제적인 위상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진정한 대표성 혹은 개방성을 찾을 때 오히려 그것이 지역성이 되고 청주만의 고유한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공예비엔날레가 될 수 있다.”

7) “흔히 ‘왜 청주에서 국제공예비엔날레가 열려야 하는가?’라는 의문에 대한 해답은 이제 전환되어야 한다. 역설적으로 왜 광주에서 비엔날레가 열려야 하고, 경기도 이천에서 도자기엑스포 열려야 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답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상기해보자. 광주비엔날레는 정치적인 의미에서, 이천은 조선시대 도자기가터였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다. (중략) 따라서 왜 청주에서 공예비엔날레가 열려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틀린 질문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청주에서 어떤 공예비엔날레를 만들고 보여주려는가 하는 고민과 더불어 청주만이 가지는 개성과 특성을 공예비엔날레에 실어내려는 노력이 더 중요한 문제이고 핵심이다. 이것은 곧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개념 설정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

넷째, 자연스러운 동선 및 배치계획. 회장의 진입동선이나, 전시관의 배치에 따른 회장 내의 동선, 그리고 각 전시관 내에서의 동선에 대한 문제점은 크건 작건 매 개최시마다 제기되었던 문제이다. 동선계획이 제반 조건과 규모, 시설의 배치 등에 기인하게 된다는 점에서 관람자의 행태보다 행사의 기획의도가 우선적으로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싶다.

관람객이 여러 규모와 비율의 공간으로 이루어진 전시장을 이리저리 거닐게 하는 동선의 유연성은 다양한 만남, 대치와 상호작용을 가능케 한다. 전시장 내에 막다른 곳은 없으며, 실질적으로 다양한 동선은 관람객이 한곳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종종 획일적이고 직선적인 동선이 갖는 단점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유동적 동선이 각각의 전시를 독립된 개체로 분리해 보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이고 복합적인 해석을 위한 통로로서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⁸⁾

현대 뮤지엄은 작가의 의도나 큐레이터의 보편적인 정보전달체계에서 벗어나 관람객의 자율적인 움직임을 통한 다양한 정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공간적 질서는 관람객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창출해 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⁹⁾

다섯째, 전시환경계획의 전문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전시와 전시형태가 다양하게 변화,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새로운 시도에 대응하고 전시의 본질적 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 전시환경계획분야에 대한 밀도 있는 연구와 아울러 전문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전시는 어떤 의도와 개념에 따라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작가가 선택한 방법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관람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다. 즉, 전시는 단순히 보여주거나 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고 참여하면서 대상물과 관람자의 상호교류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와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되어야 하는 것이다.¹⁰⁾

전시 공간은 인간과 전시물, 전시 프로그램과 디스플레이 구성에 의해 상호작용하는 공간이다. 다양한 전시를 통해 항상 변하지 않는 프로세스가 있다. 전시 공간의 디스플레이 구성은 전시의 내용이나 기간, 전시물의 성격에 따라 전시의 다양성이나 향상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체계화 된 디스플레이로 인해 전시물은 왜곡됨이 없이 관람자에게 보여지고 관람자는 전시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전시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 디스플레이 공간

은 그 자체로도 높은 가치를 갖는다 하겠다.¹¹⁾

여섯째, 다양한 전시방법의 도입. 개최가 거듭되면서, 전시방법에 있어서도 변화와 새로운 시도의 노력이 있었으며,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 더욱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전시의 방법은 모든 영역의 매체와 소통의 힘들이 복합적으로 형성된 영역이다. 시각적 소통의 영역으로서 전시는 다음의 복합적인 요인들을 포함 한다: 소리, 언어, 상징으로서의 회화들, 사진, 조각적 매체, 재료 그리고 색, 빛, 그리고 움직임, 오브제들과 관련되어 전시된 텍스트들 뿐 만 아니라 관람자의 작품에 대한 반응들. 이와 같은 조형적이고 심리학적 수단들을 전시에 적용함으로써 전시방법을 통해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전시는 다양한 영역의 매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소통의 힘을 가진 장이다.¹²⁾

5. 결론

‘비엔날레’는 그 행사의 성격상 기획의 모든 부분이 예술감독에게 집중된다. 전시기획으로부터 시작하여, 작가 및 작품의 선정, 전시관의 배치부터 시설의 계획, 심지어 홍보와 행사운영에 이르기까지 예술감독의 권한과 책임은 비엔날레의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의 경우 개최 의도나 행사구성에 있어 순수 비엔날레와는 차이를 찾을 수 있으며, 전문미술과 보편성이 복합된 종합행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앞에서의 평가와 분석을 종합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귀결됨을 알 수 있다. 그 첫째는 행사의 기획과 준비과정에 대한 문제이고, 둘째는 전시회장 조성 및 관련된 시설계획에 대한 문제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문제점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부분이 곧 부족한 전문성에 대한 지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와 같은 종합행사의 경우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기획 단계부터 각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또한 2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행사의 성격상, 시행착오를 줄이는 동시에 행사의 발전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매번 개최에 대비한 일회성 준비보다는 지속적인 데이터의 유지와 발전적 시도가 더욱 필요하며, 이 또한 각 전문분야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을 때 그 효과가 배가될 것이다.

행사의 기획의도와 규모에 부합하기 위한 전시회장의 구성에 있어서, 공간의 배치와 동선, 전시환경연출, 공법과 공기,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 등 건축과 공간에 대한

8) 최춘웅, 전시공간의 융통성, 유동성과 집중력, 한국건축학회지 v.53 n.07, 2009. 7, pp.67~69

9) 이성훈, 공간구성에 따른 뮤지엄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8권 4호, 2009. 8, p.28

10) 윤현정, 기호의 의미작용 방식 적용에 따른 전시공간연출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4권 4호, 2002. 5, p.141

11) 신흥경, 전시공간의 디스플레이 구성 원리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9호, 2001. 12, p.241

12) 신흥경, 앞의 글, p.235

전문성의 수반은 필수적이며, 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차별화에 있어서도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분야에 속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시회장의 구성에 있어 건축과 공간 전문가의 참여 또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연구자는 기획 초기부터, 실행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건축과 실내디자인분야의 적극적 참여의 필요성을 재조명함과 동시에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 접근을 통하여 향후 행사의 발전적 성장에 주요 역할이 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 '99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결과보고서, 미간행
2.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 2001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결과보고서, 미간행
3.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 2003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결과보고서, 미간행
4.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 2005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결과보고서, 미간행
5.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 2007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결과보고서, 미간행
6. 신흥경, 전시공간의 디스플레이 구성 원리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9호, 2001. 12.
7. 윤현정, 기호의 의미작용 방식 적용에 따른 전시공간연출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4권 4호, 2002. 5.
8. 이성훈, 공간구성에 따른 뮤지엄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8권 4호, 2009. 8.
9. 최춘웅, 전시공간의 융통성, 유동성과 집중력, 한국건축학회지, 제53권7호, 2009. 7.

[논문접수 : 2009. 10. 30]

[1차 심사 : 2009. 11. 18]

[게재확정 : 2009. 12. 10]